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욥의 회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위대함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고백합니다(2-3절,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욥 38: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 40: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도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게 하실 권한이 있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의 일하시는 방식까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회개합니다(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욥은 세 친구들과과의 변론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욥의 항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관심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응답은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된 것은 그 다음 말씀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세 친구들에 대한 분노와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변론에서 욥의 손을 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큰 위로와 상처에 대한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사실 그의 고난으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함으로써 마치 그의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이 욥의 죄인 것처럼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단순히 사과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회개의 조건을 말씀합니다(8-9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서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은 한 개인이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물의 양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유월절에 7일동안 하나님께 바치는 양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 친구들의 죄를 위중하게 다루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9절,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세 친구들의 순종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지만 욥의 반응은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즉 욥의 회개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욥은 죄와 상관없는 고난을 받은 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의 세 친구들에 의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변론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본래 욥의 고난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죄로 인한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 친구들과 같이 내가 가진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때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찾아와서 함께 위로해 주었던 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모든 고통을 아시고 결국에는 선으로 다 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과 행동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욥을 결국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고통과 억울함도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을 위한 기도:** 새롭게 선출된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교하며 전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멕시코 유카탄 이철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